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3. 말씀

오늘은 정요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다음 주일은 이우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4. 어머니학교 뉴저지지역 수료자를 위한 모임

그동안 어머니학교를 수료하신 어머니들을 모시고 수료자 모임을 갖습니다.
10/16(금)5-9pm 10/17(토)10am-6pm 장소 : 뉴저지 만나 교회

지난 주 (9/6/2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685.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6년 9월 20일 (674호)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윤한진
*주님의 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이사야 22:5-14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파수꾼 이야기	정요찬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9/27/26	10/4/26
강민선	유영환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예수 +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총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갈라디아서도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은혜라는 시선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은혜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공짜도 아닙니다. 즉 은혜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은혜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 은혜에 걸맞는 열매가 결코 맺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과 같습니다. 무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들만 들어오는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예수님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무덤인 우리와 이 세상은 결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그 빛이, 그 생명이, 그 보배가 우리 안에 담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을 탓하는 것으로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을까요? 무덤은 생명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은혜가 다일까?” “우리의 노력은?” 이 마음을 알고 있는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복음은 은혜로 다 되는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도 중요하다는 것을 복음에 섞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은 강력했습니다. 모두가 그 다른복음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찌보면 그들이 그리로 넘어갈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생명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행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나를 즐겁게 해 주고 나를 기쁘게 해 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다른 복음은 유혹이라기 보다 우리의 본질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교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 번영과 성공, 자기계발, 인간의 결단, 도덕성, 직분, 봉사, 숫자, 소비자주의, 정치, 이념이라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인간의 행위와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위에 다른 업적을 세우면 주님의 날에 그 모든 업적이 불에 타 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마지막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운 모든 공적과 업적은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는 주님의 불 앞에 모두 타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반석되신 그리스도만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반석되신 그리스도만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다른복음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으며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우리 안에 온전히 맺히지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